

금남로 사진관

“답답했나요? ...하지만 마스크 아직은 써야 할 때”



광주 동구 동명동 길가에 누가 흘린건지 모를 마스크가 떨어져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그나마 숨쉬기가 편하다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미 완판됐다.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아직은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진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할 형편이다.

시민 중에는 “청정지역 광주에서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예 착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촘촘한 방역 체계라도 밀집, 밀접, 밀접된 시설에서는 효과가 반감된다. 수도권 등지의 다단계식 건강용품 세미나 같은 곳에서 확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다.

우리의 작은 방심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 마스크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물품이다. 아무리 덥더라도 아직은 써야 한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본부, 청렴의지 다짐 ‘꽃바구니’ 제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홍창의)는 6월 첫째 주를 ‘청렴윤리 주간’으로 정하고 최근 직원들과 ‘청렴 꽃바구니’를 제작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청렴 꽃바구니 제작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대외에 반부패·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제작한 청렴 꽃바구니를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창의 본부장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함께 국가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직원들과 되새겨보는 자리였다”며 “전 직원들이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고객이 신뢰할 수 있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멘토들에 받은 사랑 마스크로 보답해요”

광주 임곡중 학생들 마스크 보은

장학금 준 ‘도담 길재비’ 멘토들에게 감사 마음 담은 손편지와 함께 전달

광주시 광산구 임곡중학교 학생들이 ‘도담 길재비’ 멘토들에게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임곡중학교(교장 김성철) 학생회(회장 나준엽·3년)가 최근 멘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을 열었다. 학생들은 멘토들로부터 받은 장학금 일부를 각출해 면 마스크를 준비했다. 이들은 마스크와 함께 ‘고맙습니다. 도담멘토!’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멘토들에게 전달했다.

〈사진〉



이와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방언이다.

나준엽 학생회장은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은 멘토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임곡중학교가 널리 알려져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곡중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14명인 미니학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자원 전남북부권지사,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는 최근 평형정수장과 함평정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수자원공사 영·성유역본부 제공〉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엽미가 바랍시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성여정(재)	00 제보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40 도올학당 수다승철(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보 모야아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코리아인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뉴스브리핑
3	00 UHD 승터(재)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예코하우스	00 정재영의 이슈IN(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3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5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저녁 같이 드실래요?	40 쿡캐스팅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분 어게인	50 PD수첩	
11	35 UHD 승터 40 바다 건너 사랑(재)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45 폰대인전(재)	00 불타는 청춘
12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KBS결착 다크멘터리(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오세모(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EBS 마스터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뽀로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당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30 출동! 슈퍼핑크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8: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오와 해오	20:00 건축탐구 - 집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중국 소수민족기행-아름다운이런〉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5:25 출동! 슈퍼핑크(재)	21:30 한국기행 〈아니 벌써, 여름 2부 모리산, 그 사나이〉
09:30 페파 피그	15:4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6:10 픽시(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3:45 EBS 명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 (음운4월 18일 癸未) ☎ 010-9790-8237

<p>36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48년생 평상시에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60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72년생 교육의 크기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 84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96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20, 99</p>	<p>42년생 유동적 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54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66년생 실행한 후에 밝혀도 뉘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78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90년생 조금만 자제한다면 불행함이 사라질 것이다. 02년생 일을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9, 84</p>
<p>37년생 절제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49년생 다른 것과 비교될 정도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리라. 61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73년생 파종은 힘들더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85년생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목적했던 바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다. 97년생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5, 50</p>	<p>31년생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손대어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43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55년생 훨씬 좋은 여건이다. 67년생 애매하다면 흥하니 흥백은 확실하게 가리는 것이 낫다. 79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한 정도는 아니다. 91년생 직접적인 방법보다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 행운의 숫자 : 28, 56</p>
<p>38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작기에 용처가 나타나리라. 50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수도 있다. 62년생 건실한 발상 속에서 북이 피어나는 법이다. 74년생 좋고 나쁨을 따질 게 제가 아니니 확실하게 추진하고 볼 일이다. 86년생 백 마디의 말 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설득력을 얻는다. 98년생 구구일 모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80, 82</p>	<p>32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금을 조절 해야겠다. 44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다. 56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68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80년생 여러 번의 기회들이 지나갈 것이니 잘 살펴봐라. 92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6, 97</p>
<p>39년생 잘 되어지라고 믿었던 것이 여의치 않을 수다. 51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이니라. 63년생 진원지는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75년생 다소 잡음이 들리겠으나 대법하면 그만이다. 87년생 발전의 기운이 융숭치지는 형상이로다. 99년생 최선을 다 하면서 절실히 갈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41, 90</p>	<p>33년생 정제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45년생 평정이 나타나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니 지나친 경쟁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 57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리라. 69년생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다. 81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함들로 작용한다. 93년생 진행 방향은 바르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54</p>
<p>40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서 올 수이니 반갑반흉이로다. 52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64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자. 76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다. 88년생 심기가 불편하리라. 00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실하라. 행운의 숫자 : 42, 78</p>	<p>34년생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보인다. 46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구태어 남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70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94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87</p>
<p>41년생 안금과 정도를 조절하자. 53년생 제어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탐욕구를 모색하더라도 침지만은 양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77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 될 것 이니라. 89년생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01년생 깔끔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48, 98</p>	<p>35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47년생 금전에 집착하다보면 더 큰 의미를 잃게 됨을 감안하라. 59년생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낫다. 71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만 할 것이다. 83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95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행운의 숫자 : 05, 85</p>